



안전... 확인 또 확인!

#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글 이미숙 KFPA 계몽홍보팀 과장



〈KFPA 화재안전 우수건물 지정 현판식〉

##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소개

대전 서구 대덕대로(둔산동)에 위치한 지상 7층, 지하 3층 건물로서 2004년 10월에 100병상 규모로 개원하였다가 2009년 10월 새롭게 7병동을 가동하면서 134병상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내과, 침구과, 재활의학과 등 한방 14개 진료과목과 흉부외과, 부인과(가정의학과) 등 양방 2개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중부권 최대의 한·양방 합진 병원이다. 전문의 16명, 수련의 25명, 교직원 120명이 연간 외래환자 수 10만 여명에게 우수한 한방치료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둔산한방병원의 최대의 장점은 한방과 양방의 특수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시켜 한·양방 합진 의료체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한방의 전통 있는 치료방법에 양방의 객관적인 진단이 더해져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케 한다. 약제도 최상의 제품을 정량 사용하며, 약재의 중금속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하고 황토지장수로 한약을 달인다. 또한 뜸, 향기요법실, 족욕·반신욕실, 좌훈실 등 다양한 대체요법실과 특화클리닉도 운영하여 환자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 환자의 심리도 중시 여겨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도 있듯이 심리적인 치료도 중시하여, 환자들을 위해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여기저기 애쓰 흔적이 엿보인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여느 병원과 달리 둔산한방병원은 들어서는 순간 한약차의 그윽한 향기와 전통 실내악이 반겨주어 병원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준다. 로비의 인테리어 또한 편안한 느낌을 주는데, 눈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열은 색채를 이용하였다는 시설자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었다. 3층과 7층 옥상에 위치하여 가벼운 산책과 자연경관을 감상하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정원은 아기가기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 안전... 확인 또 확인!



임명욱 팀장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더라도 관리가 허술하면 무용지물이다. 둔산한방병원은 최상의 방재시설이나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철저히 관리한다. 임명욱 시설팀장은 매일 2~3회 이상 병원 곳곳을 다니며 소화기, 화재수신기 등을 매일 점검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원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한다. 한약을 달이기 위해 하루 종일 불을 사용하는 약제실은 화재발생 우려가 많은 만큼 보다 꼼꼼히 체크하며, 직원들이 근무하는 낮 시간 동안에만 약을 달이고 해당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 직원교육도 철저

병원에는 환자와 보호자 등 병원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 만큼 화재 발생 시 병원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 직원에 대해 매년 1회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부서별로 임팀장이 직접 수시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환자와의 접점이 가장 많은 간호사에게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을 기하고 있으며, 임팀장 본인도 방화관리자로서 능력향상을 위해 늘 공부한다고 한다.

특히 화재 등 유사시 환자들의 보호가 가장 중요한 만큼, 둔산

한방병원은 환자를 “거동 불편”, “보호자와 이동 가능”, “혼자 이동 가능” 등 3분류로 나눠 직원들이 환자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이색적이다.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작은 것까지 꼼꼼히 신경 쓰는 둔산한방병원은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난 2011년 9월 KFPA로부터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이 한·양방 합진 의료체제의 메카로서 미래 지향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해 환자로부터 전폭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탐방을 마쳤다. ☺

